

우리 모두 환경관리인이 되자



金元滿
(한양대 명예교수, 본회고문)

1. 서론

환경관리인 제도에서 환경관리인이 기업의 고용인 인데도 기업에서는 법으로 환경관리인을 임명하도록 강요되고 있고 환경처는 기업이 임명한 환경관리인을 교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 환경관리가 잘못 되었을 때는 기업과 환경관리인이 함께 벌을 받게 되는 등 대단히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면이 있어서 환경관리인 여러분의 애로상황이 많은데도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전하는데 환경관리인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만일 관계 기업들이나 모든 환경관계 인사들,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이 환경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행동한다면 환경관리인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상태가 크게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958년 유학차 미국에 갔을때 Johns Hopkins대학 Abel Wolman교수가 매일아침 T.V에 나와서 Potomac강을 오염으로부터 구하자는 호소를 하는 것을 보았고 Los Angeles시에서는 제작후 5년 이상경과된 차

동차의 운행이 금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과연 만나라에 왔구나 생각했다.

그시절 우리나라는 6.25사변으로 황폐된 국토와 뿔감으로 쓰기 위하여 나무가 벌채된 발가벗은 산림이 흉수가나면 산사태를 일으키고 수도물은 시간제로 급수하였으며 평지보다 약간 높은곳은 밤중에 물이 나오는 날도있으나 대개는 안 나오는 날이 많았으며 그보다 높은 고지대에서는 급수차로 물을 공급하는 형편이었다. 특히 부산에서는 밤중의 통행금지 시간에 4부두(埠頭)앞 공동수도에서 물한통을 받기 위하여 수백명이 밤을 새우는 형편이었는데 미국에 와보니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천이나 대기의 오염문제를 다루고 있었으며 산림이나 시내의 공원에 는 수목이 울창하여 사람이 들어가기도 어려우며 구두에 흙이 묻지않아서 구두를 닦을 필요가 없고 의복의 세탁도 거의 하지않고 지낼 수 있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도서관과 공부방이 주어져서 밤을 세우면서 공부하여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매주 주어지는 산디미같은 숙제를 풀고 있으면 Golf치러갔던 동료 미국대학생들이 일요일 오후에 돌아와서 말이 서툴고 책을 읽는데 그들보다 3배이상 시간이 걸리는 내게 숙제를 하는 도움을 청하는 등으로 언어장애 등 유학초기의 Handycap을 주말공부로써 극복하면서 지내던 기억이 난다.

2. 환경 문제의 대두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울산공업단지의 개발로 울산화학 비료공장과 한국알미늄 공장주변 배밭이나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게되자 정

부의 관계부처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현장을 답사하게 되었고, 20~30mm의 비가오면 대구 금호강하구에서 담수어가 폐죽음을 당하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서울도심에 일부 학자들이 이산화연법에 의한 SO₂가스 측정기를 설치하고 그 오염도가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발표하여 말썸이 생기게 되고, 한강 유원지로서 겨울철 스케이트장으로 쓰이던 노량진이 폐쇄되고 여름철 강놀이터로 쓰이던 뚝섬도 유원지로서 적합하지 않게 되어 폐쇄되는 등 오염이 점차 심화됨으로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개발을 중단할 수는 없으므로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개발할 수 있는 Environmentally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와같은 과제를 풀어야 할 책임을 가진 학자들이 중지를 모으고 관계되는 주민의 참여와 언론의 채찍들이 뭉쳐서 하나의 보다 나은 대안을 만들어 내고 후손들에게 영원히 살기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주도록 환경과 관계되는 여러분야의 학자들이 우리나라 환경관리인의 역할로서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이룩해야 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더라도 인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개발을 중단할 수는 없으므로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개발할 수 있는 Environmentally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와같은 과제를 풀어야 할 책임을 가진 학자들이 중지를 모으고 관계되는 주민의 참여와 언론의 채찍들이 뭉쳐서 하나의 보다 나은 대안을 만들어 내고 후손들에게 영원히 살기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시 환경문제를 주로 다루는 학자들로서는 예방의 학분야와 위생공학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었고 정부에서도 보사부에 위생국이 생겨서 공해문제를 다루게 되었으며 그후 이 위생국이 환경처의 모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정부와 일반국민의 의식이 개발 지상주의에 우선하였으므로 환경문제의 논의는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던것으로 기억된다.

3.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환경청의 발족과 함께 점차 환경문제가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함에 따라 환경을 다루는 학자들도 화학, 생물분야로 확대되고 소음, 진동, 쓰레기문제 등도 주요 대상으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법적문제, 경제문제, 행정적문제 등 환경과 관련되는 분야가 대단히 광범위 해지면서 다수의 전문인이 나타나고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상태에 이르렀음은 경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더라도 인간생

4.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우리는 가정에서 쓰레기를 모아 가연성과 비가연성, 재생가능물질과 불가능물질로 분리수거하고 합성세제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길거리에서 담배꽂이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 공원이나 낚시터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하고 기업인은 필요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제대로 운영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하고 농민들은 폐비닐이 토양속에 묻히지 않도록하고 농약과 비료의 적정분을 사용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강이나 바다에 사료나 어구, 양식도구 등을 버리지 말아야 하고 Golf장에서는 맹독성 농약이나 과다한 비료살포를 억제하고 식생을 잘 보전해야 하며 하수처리나 폐수처리를 담당하는 기술인들은 최선의 방법으로 오염도를 낮추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환경관리인이 되어 보다 나은 환경과 아름다운 국토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